

익산시 기업유치 '파란불'

일반산업 진입도로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접근성 향상 도로개설로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 진입도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 유치에 도 청신호가 기대된다.

특히 시는 주요 도로망에 이어 도심 가로환경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최근 시공사와 소송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1.8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무 IC까지 진입도로 11.88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합열 용양교차로(국도23호선에서 삼기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

는 '국도 23호선 도로화·포장공사와 경기 평택에서 충남 부여를 거쳐 익산에 이르는 '사부내륙고속도로 개설사업', 황등 신기리에서 금마면 동고도로 이르는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교통물류 기반이 조성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심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도로 재포장과 인도정비, 도로변 제조작업 등 도로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10억원을 투입해 5km에 이르는 노후도로를 재포장했으며 인

도 4.5km를 정비했다. 오는 12월 말까지 4km 도로를 재포장 하고 나머지 인도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주요 도로 사거리 206개소와 주요 노선에 36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노선은 지속적으로 제조작업과 풀베기(273km)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과 불법 노점상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

시는 2개조 6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광고물과 불법 노점상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매월 전북도육외광고협회와 연계한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박부자농장(대표 박영철)이 29일 대야면사무소에 보리(4kg) 100포(6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군산 대야면 박부자농장, 취약계층에 '사랑 나눔'

보리 4kg 100포 65만원 상당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하게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이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 대야면은 박부자농장(대표 박영철)이 29일 대야면사무소에 보리(4kg) 100포(6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쌀, 보리, 가지, 양배추 등의 작물을 취급하는 박부자농장 박영철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인간극장에 소개된 농업인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웃돕기를 해오고

있다. 지난 달에는 농촌 발달을 이끌어 가는 선도 농업인에게 주는 새농민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철 대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제가 농사지은 보리를 드시고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관철 대야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사랑을 실천한 박영철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기자

군산시, 인구문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다양한 정책 발굴 행정력 집중 2020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군산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무너지자 인구 증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군산시 인구 현황 및 5개 분야 58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정책개선에 대한 건의 및 향후 군산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관계 공무원 6명, 시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4월부터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인구정책의 집중발달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T/F팀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T/F팀은 인구정책 중점추진 부서과장 및 실무계장 등 총 6개 분야 T/F팀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분야별 회의에서 논의된 건수는 총 20건이며 이 중 12건은 신



군산시 2020 인구정책 가이드북.

규사업, 8건은 계속사업에 대해 확대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이다.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0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시는 일상에 바쁜 시민들에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산을 널리 홍보하고자 가이드북을 읍면동, 보건소, 관내 산부인과 등에 배포했다.

더불어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인구정책 UCC 공모전을 시행했다. 공모기간인 33일 간 총 1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사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제3회 인구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수상작을 군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랑 가족 사진전'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 시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시민원탁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4개 대학 우선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 인구정책 실천현안'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비혼녀 만남행사를 개최하여 올해 인구정책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전 화위부의 계기 마련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확대 발급

익산시가 경기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전국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확대 발급한다. 시는 30일부터 익산 다이로움 카드를 NH농협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다이로움' 카드는 현재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스마트폰 앱)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온라인(스마트폰 착한페이앱)으로 카드를 신청하거나 지역농협은행 또는 농·축산은행

점(48개 지점)을 방문하면 NH농협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농·축협)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하나카드 소지자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월 구매한도(총정·결제 통합관리)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시는 어르신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발급 편의성을 높여 가입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신 도시기행 수시투어' 수도권 관광객 호응... 8~11월

익산시가 지역의 관광 명소를 돌며 야생조각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신 도시기행 수시투어'를 실시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영된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다시 빛났다. - 전북 익산편'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이와 연계해 수시 투어를 운영한다.

수시투어는 방송을 통해 익산의 매력에 빠진 수도권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기획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투어를 원하는 관광객들은 롯데관광, 여행스케치, 로망스 등 주요여행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쿠팡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어 장소는 미륵사지와 국립익산 박물관,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숲, 달빛소리 수목원, 문화예술의 거리 등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동네서점 · 군산시립도서관 '독후감 쓰기 대회' 개최

군산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군산시민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군산 동네서점 3개소(한길문고, 예스트서점, 그림책앤)와 도서관이 함께하는 독후감 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여대상은 군산시민인 어린이(초등생)/청소년(중고등생)/성인(대학생 이상)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도서관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천도서 목록을 참조해 선정하면 된다. 독후감은 대상 도시를 읽고 느낀 점을 A4용지(글자크기 10, 줄간격 180% 기준)로 어린이 0.5~1매, 청소년 1~2매, 성인 2~3매 분량을 한글파일로 작성한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gbookshop@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도서관 홈페이지(lib.gnsn.gokr) 서식 참조) /군산=한영봉기자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SW코딩 교육봉사활동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이틀에 걸쳐 전주 유일여고에서 SW코딩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알티노-자율주행'을 주제로 SW코딩교육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KDN에서 SW강사교육을 수료한 재학생들이 대상 학교에 직접 찾아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그동안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매우 떨리고 설레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봉사단을 이끈 가치혁신센터장 이종민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SW코딩 교육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